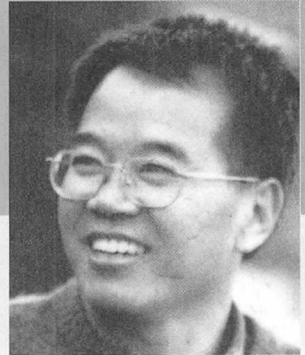


유려한 산문정신 펼치는 에세이스트

정직한 내면풍경과 개성적인 시각



왼쪽부터 박완서 · 고종석 · 김용택



90년대는 '에세이의 시대'로 기록될 법하다.

이데올로기의 폐허 위에 일상과 자아가 복원되면서
자아성찰적인 글이 부쩍 늘었다. 올해 출간된 산문집

가운데서도 정직한 내면풍경과 세상을 바라보는
개성적인 시각이 담긴 산문을 만날 수 있다.

문학사에 등재된 시인·소설가 가운데 빼어난 에세이를 썼던 이들은 의외로 드물다. 정직한 자기고백과 날카로운 비평정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태준의 《무서록》, 이상의 《권태》, 김수영의 《시여, 침을 뱉어라》 등이 단아한 문체, 비범한 감수성, 번득이는 비평정신의 탁월한 에세이로 손꼽힌다.

90년대는 '에세이의 시대'로 기록될 법하다. 이데올로기의 폐허 위에서 일상과 자아가 복원되면서 자아성찰적인 글이 부쩍 늘었다. 올해 출간된 산문집 가운데서도 몇몇 수작을 만날 수 있다. 시와 소설로 담아내지 못하는 내면풍경과 세상을 바라보는 개성적인 시각을 읽는 즐거움이 쏠쏠하다.

원로문인들의 문학세계

박완서·신경림·김윤식·김병익의 산문집 《아름다운 성찰》(한울)은 시·소설·비평에서 일가를 이룬 원로문인들의 문학세계를 담았다. 소소한 일상에서 보편성의 미학을 이끌어낸 박완서, 노을·길·그늘·바람 속에서 만난 인물·사건·장면을 포착해낸 신경림, 비평세계의 고뇌 어린 탐색과 열정을 보여준 김윤식, 자아와 비평정신의 형성사를 일기 쓰듯 고백한 김병익의 글이 4중주곡을 이뤘다.

“생각해보면 내게는 길만이 길이 아니고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이 길이였다. 나는 그 길을 통해 바깥 세상을 내다볼 수 있었고 또 바깥 세상으로도 나왔다. 그 길은 때로 아름답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했다. 나는 지금 그 길을 타고, 사람을 타고 되돌아가고 싶을 것일까”라는 신경림의 글은 시인의 직관과 연륜으로 빛은 깨달음의 언어다.

박완서의 《님이어, 그 숲을 떠나지 마오》(여백)와 김성동의 《먼 곳의 그림내에게》(좋은날)는 신 앞에선 영혼의 순례기다. 3년 동안의 성경 묵상을 모은 박완서의 책이 절대자와의 만남에서 인간의 교만과 왜소함을 깨닫는다면, 김성동의 글은 “때꼬장물이 잘잘 흐르는 누더기를 걸치고 저잣거리로 나서는 기분” 같은 사바세계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면서 산사를 그리는 마음을 담았다.

“나의 칼은 남의 허물을 단죄하는 데 하도 부지런히 써먹어서 무디어지고, 대신 저를 단죄하는 데는 칼등을 쓰고 있었군요”라는 박완서의 고백은 모든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한다. “이 육계화택의 이치와 저 우주 삼라만상의 진리를 막힘없이 통달”하고 싶다는 김성동의 염원도 우리의 욕망과 닮아 있다.

소설가·칼럼니스트 외에 '에세이스트'라는 직함을 지닌 고종석은 에세이의 본령인 비판정신에 충실하다. 한달 사이를 두고 연이어 펴낸 《감염된 언어》(개마고원)와 《언문세설》(열림원)은 모국어의 번두리를 산책한 기록이다. 해박한 언어학 이론과 감수성 넘치는 문체로 언어순결주의를 조롱하는가 하면 모국어에 대한 애뜻한 사랑을 고백하기도 한다.

몰락하는 농촌공동체에 대한 기억

시인 김용택과 신현림은 각각 농촌공동체에 대한 기억과 도시적 감수성을 대변한다.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한양출판)와 《그리운 것들은 산 뒤에 있다》(창작과비평사)로 섬진강변 진메마을의 자연과 사람들을 황토빛 서정으로 그려냈던 '섬진강의 시인' 김용택은 《섬진강 이야기(1·2)》(열림원)에서 몰락을 눈앞에 둔 농촌공동체의 기억을 글로나마 복원하려 한다.

영상에세이 《나의 아름다운 창》(창작과비평사)을 펴냈던 신현림은 《희망의 누드》에서 사진 이미지를 일상의 체험과 접목시킨다. 주명덕의 사진 <송광사>에서 “마음이 붉은 햇빛 아래 쉬어”가고 폴 드 노이어의 <자연을 다림질하는 사람>에서 인간이 원하는 조건으로 자연을 바꿔놓는 것에 대한 풍자를 읽어낸다.

우리 시대의 산문가들은 삶을 언어로 빚어내는 기술이 빼어나다. 또한 신과 자연 그리고 인간에 대한 통찰이 넓고 깊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산문세계는 결국 자아성찰과 인간에 대한 겸손의 미덕으로 귀착된다.

— 박천홍 기자